

광주 '내 집 마련 지름길' 청약통장 가입 첫 감소

지난달 80만5389명으로 전달보다 124명 줄어...금리 인상·부동산 경기 위축 등 영향

광주지역 주택청약종합저축 가입자 수가 사상 처음으로 감소했다. 금리 인상과 지역 내 공급물량 증가로 부동산 경기가 얼어붙으면서 '내 집 마련의 지름길'이라 불리던 청약통장까지 가입자 수가 감소한 것이다.

24일 한국부동산원 청약홈 통계자료에 따르면 지난달 말 기준 주택청약종합저축 광주 가입자 수는 80만5389명으로, 전달(80만5513명)보다 124명이 줄었다.

같은 기간 전국 가입자 수도 2701만9253명으로, 전월(2703만1911명)으로 1만2658명 감소했다. 이는 2009년 청약예금·청약부금·청약저축 통장이 '주택청약종합저축'으로 통합된 이후 처음이다.

2010년 7월 기준 11만9909명이던 광주지역 청약저축 가입자는 10년 뒤인 2020년 76만4166명으로

급증했다. 이후 2021년에는 79만2417명으로 늘었다.

올해 들어서도 1월부터 6월까지 79만8764명→80만820명→80만1911명→80만3272명→80만4287명→80만5513명 등 매달 1000명 이상 증가하다가, 지난달 처음 감소세로 돌아섰다.

그동안 청약저축은 '내 집 마련'이라는 꿈을 이루기 위한 필수 상품으로 꼽혔다. 광주지역 부동산 경기가 호황일 때는 집값 상승 폭이 큰 탓에 청약에 당첨된 뒤 분양권을 되팔거나, 입주한 이후에도 곧장 주택을 매매하는 등 차익을 얻으려는 심리도 주택청약 인기에 한몫했던 게 사실이다.

하지만 청약저축 가입자가 갑작스럽게 감소세로 돌아선 것은 최근 금리 인상 여파로 광주지역 부동산 경기가 위축된 것이 원인으로 지목된다.

우선 8월 3주 주간 아파트가격 동향 자료를 보면

이달 셋째 주(15일 기준) 광주지역 아파트 매매가격은 -0.02%를 기록했다.

지난 7월 4일까지 무려 106주 연속 오르는 등 연일 상승세를 기록해 왔던 광주 집값은 지난달 둘째 주(11일)를 기점으로 하락세로 돌아섰다. 11일과 18일, 25일 등 3주 연속 각각 -0.01% 하락을 기록한 이후 이달 접어들면서 1일과 8일, 15일 3주 연속 -0.02%씩 떨어지고 있다.

집값 하락과 동시에 지역 부동산 시장에는 매매 물량도 쏟아져 나오고 있다. 부동산 빅데이터 업체 '아실'에 따르면 이날 기준 광주지역 아파트 매매·전세 매물은 1만6821건으로 6개월 전(4445건)보다 278.4% 늘었고, 1년 전(2550건)에 비해서는 559.6%나 급증했다.

반면 국토교통부가 조사한 광주지역 주택 매매거래량은 지난 6월 기준 1707건으로 전월(2460건)

대비 30.6% 줄었고, 전년(2717건)에 비해 37.2% 감소하는 등 거래절벽 사태까지 겹쳐 집값 하락을 부추기는 모양새다.

특히 분양만 했다 하면 완판을 이어왔던 것과 달리 최근 광주에 미분양 주택도 증가세에 있다. 6월 말 기준 광주 미분양 주택은 1987가구로 전월(467가구) 대비 330.4% 늘어난 것으로 파악됐다.

또 부동산R114가 올해 초부터 이달 11일까지 청약홈의 시도별 아파트 청약 현황을 분석한 결과 광주의 평균 경쟁률은 6.75대 1로 집계됐다. 수년 전까지만 해도 50대 1의 경쟁률은 쉽게 웃돌았던 광주의 청약 열기가 그만큼 식었다는 얘기다.

광주의 한 부동산 전문가는 "금리가 오르며 주택 경기가 침체한 데다, 분양가 자체도 워낙 높게 책정되는 사례가 많아 청약에 당첨되도 얻는 시세차익이 예전과 다르다"며 "이런 전반적인 부동산 시장의 분위기가 청약 열기가 식고 청약에 대한 기대도 감소한 것 같다"고 설명했다.

/박기용 기자 pboxer@kwangju.co.kr

대학등록금 납부 경품행사 광주은행 9월 30일까지

광주은행이 오는 9월30일까지 '2022학년 2학기 대학등록금 납부 경품행사'를 진행한다.

응모 대상은 광주은행 영업점·인터넷·자동화기기 등을 통해 광주·전남지역 대학교의 등록금을 낸 고객(대학생·대학원생)이다.

등록금을 내고 광주은행 홈페이지나 모바일 앱에서 경품 응모를 하면 된다.

광주은행은 총 233명을 뽑아 장학금과 경품을 제공한다.

1등 당첨자에게는 장학금 200만원을 주고, 2등 2명에게는 장학금 100만원씩 준다.

3등 30명에게는 5만원 상당 모바일 문화상품권, '행운상' 200명에게는 커피 상품권 2매가 주어진다. 당첨자는 오는 10월 중 홈페이지를 통해 발표된다.

김재춘 광주은행 영업추진부장은 "앞으로도 대학생과 사회초년생에게 다양한 금융서비스와 차별화된 이벤트를 지속해서 이어나갈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백희준 기자 bhj@kwangju.co.kr

광주·전남 제조업 체감경기 소폭 상승

두 달만에 반등... '경영 애로사항' 원자재가 상승·인력난 등 꼽아

두 달째 하락하던 광주·전남 제조업 체감경기가 이달 반등했다.

24일 한국은행 광주전남본부 발표된 8월 광주·전남 제조업 업황 BSI(기업경기실사지수)는 72로 전월 대비 2포인트 상승했다.

다음 달 전망BSI도 72로 3포인트 오르는 데 그쳤다.

전국 제조업 업황BSI 80과 비교하면 8포인트나 낮다.

광주·전남 제조업체들의 체감경기는 기준치(100)를 크게 밑돌았다.

업황 BSI는 경기가 좋다고 응답한 업체 비율에

서 나쁘다고 응답한 업체 비율을 뺀 뒤 100을 더한 값이다.

기준치(100) 이상이면 긍정 응답 업체 수가 부정 응답 업체 수보다 많고, 이하는 그 반대다.

광주·전남 제조업 업황 지수는 지난달 70까지 떨어지며 2020년 10월(69) 이후 1년 9개월 만에 최저를 기록한 바 있다.

제조업 매출BSI는 82로 전월 대비 1포인트 하락했으나 다음 달 매출 전망BSI는 86으로 전월과 비교해 1포인트 올랐다.

제조업 신규수주 BSI와 다음 달 신규수주 전망 BSI는 각 87과 84로 전월 대비 2포인트씩 올랐다.

제조업 경영 애로사항으로 원자재 가격상승(30.3%), 불확실한 경제 상황(17.5%), 인력난 및 인건비 상승(13.0%), 내수 부진(11.8%) 등의 순으로 나타났다.

원자재 가격 상승을 애로사항으로 꼽은 응답률은 전달(42.6%)보다 12.3%포인트 감소했고, 불확실한 경제 상황이라 답한 비율은 전달(14.5%)보다 3.0%포인트 증가했다.

비제조업의 업황BSI는 79로 전월 대비 1포인트 상승했고 다음 달 업황전망BSI는 79로 전달과 같았다.

조사는 지역 내 종사자 수 5인 이상 제조와 비제조업체 585곳을 대상으로 지난 4일부터 18일까지 이뤄졌다.

/백희준 기자 bhj@kwangju.co.kr



삼성 디지털프린터 삼성대치본점 제품 전문 상담사 디테일러가 청각·언어장애 고객에게 전달 통역사와의 3시간 화상 상담을 통해 제품 주요 정보와 기능 시연, 구매 상담을 해주고 있다. <삼성전자 제공>

삼성전자, 온·오프 매장 수어상담 서비스 개시

삼성전자는 24일부터 온·오프라인 매장에서 수어 상담 서비스를 도입해 시행한다.

청각·언어장애 고객은 제품 정보뿐 아니라 주요 기능 시연, 구매 상담까지 전 과정을 삼성전자 제품 전문 상담사 '디테일러' (D'tailor), 수어 통역사와 3시간 화상 상담 서비스를 통해 제공받을 수 있다.

해당 서비스는 온라인으로 실제 매장 등 동일한 쇼핑 환경을 제공하는 비대면 통합 쇼핑 서비스인 삼성 VR 스토어, 삼성닷컴 매장 상담예약 페이지, 삼성 디지털프린터에서 사전 예약을 통해 이용할 수 있다. 삼성전자는 더욱 쉽게 서비스를 이용할 수 있도록 수어 가이드 영상도 제작해 배포할 예정이다.

수어 상담 서비스는 경기도 농아인협회와 위탁 계약을 통해 운영되며, 공인 자격을 갖춘 전달 통역사가 전문적인 수어 상담 서비스를 제공할 예정이다.

고객들은 3차 화상 상담을 통해 제품의 외관과 시연하는 모습을 실시간으로 보며 수어 통역 서비스를 받을 수 있어 어디서나 제품의 다양한 사용성을 경험할 수 있다.

삼성전자는 이번에 온·오프라인 매장에서 수어 상담 서비스를 도입함에 따라 국내 전자업계 최초로 판매·서비스·설치 전 영역에서 수어 통역 상담 서비스를 제공하게 됐다. 삼성전자 서비스와 삼성전자 로지텍은 올해 3월부터 수어 상담 서비스를 제공했다.

이현정 삼성전자 한국총괄 상무는 "더 많은 고객들이 언어와 이동의 불편 없이 삼성전자의 다양한 제품을 어디서나 편리하게 상담할 수 있도록 수어 상담 서비스를 제공하게 됐다"며 "앞으로도 제품 자체뿐만 아니라 제품의 유통 과정에서도 고객 접근성을 높이는 데 많은 노력을 기울여 나갈 것"이라고 말했다.

/박기용 기자 pboxer@kwangju.co.kr

효성티앤씨, 옥수수로 만든 스파텍스 첫 선

26일까지 국내 최대 섬유박람회 '프리뷰 인 서울 2022' 참가

효성티앤씨는 24일부터 26일까지 서울 코엑스에서 열리는 국내 최대 섬유전시회인 '프리뷰 인 서울 2022'에 참가해 친환경을 테마로 한 최대규모 전시 부스를 마련했다고 이날 밝혔다.

효성티앤씨는 이번 '프리뷰 인 서울'에서는 처음으로 옥수수를 원료로 만든 스파텍스 섬유 '크레오라 바이오베이스드'로 만든 원단을 선보인다.

'크레오라 바이오베이스드' (creora bio-based)는 스파텍스 재료 중 석탄에서 추출하는 원료 일부를 미국 농무부(USDA) 바이오 인증을 받은 옥수수에서 추출한 원료로 대체해서 만든 바이오 섬유다.

우수한 신축성 및 회복력을 바탕으로 스포츠 및 애슬레저 웨어, 란제리 등 기존 스파텍스가 활용되

는 모든 분야에 적용될 예정이다.

효성티앤씨는 리젠(regen) 등 리사이클 폴리에스터 섬유에 이어 스파텍스 시장에서도 친환경 섬유 시장을 본격적으로 확대하는 계기가 될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이와 함께 해안가에서 발생한 페페트병으로 만든 폴리에스터 리사이클 섬유 '리젠 오션', 폐어망을 재활용해 만든 나일론 리사이클 섬유 '마이판 리젠 오션'으로 제작한 원단을 소개한다.

효성티앤씨는 이번 전시회에서 국내 1위 SPA브랜드 '탑텐'과 캐주얼 웨어 브랜드 '지오지아' 등을 보유한 신성통상과 전략적으로 협업한 다양한 패션 제품을 선보인다.

특히 신성통상의 친환경 의류 라인 '에코리아

(ECOREA)' 티셔츠, 바람막이 상하의 세트, 가방 등은 효성티앤씨의 대표 리사이클 섬유 '리젠'으로 만들었다.

이외에도 전시부스 내 친환경 리사이클 섬유 '리젠' 등으로 제작한 다양한 패션 브랜드의 제품들을 소개한다. 무신사 스탠다드의 티셔츠와 양말, 닥스 셔츠의 넥타이, 무인양품·엘에이알의 운동화 등을 선보인다.

국내 중소 원단 협력사 9곳을 지원하기 위한 공동부스도 마련했다. 전시 공간과 영업 및 상담 장소를 무상으로 제공해 친환경 섬유 시장의 생태계를 확장하는 동시에 상생하는 계기를 마련하기 위해서다. 국내는 물론 해외 주요 바이어들과의 접점을 만들고 판로를 개척하는 기회로 활용되기를 기대하고 있다.

/박기용 기자 pboxer@kwangju.co.kr



친환경 실천하고 포인트 받으세요 롯데백화점 광주점 직원이 24일 9층 사은행사장에서 고객이 가져온 추석 선물 보냉가방을 도로 거둬들이고 있다. 롯데백화점은 다음 달 25일까지 모바일 앱을 이용해 추석 선물 보냉가방을 돌려주는 고객에게 개당 5000점(최대 5만원) 상당 포인트를 증정한다. <롯데백화점 제공>

농심, 라면·스낵 제품 출고가 인상

신라면 10.9%·새우깡 6.7% 등

농심은 9월 15일부터 라면과 스낵 주요 제품의 출가가격을 평균 11.3%, 5.7% 각각 인상한다고 24일 밝혔다.

라면 가격 인상은 지난해 8월 이후 약 1년 만이고, 스낵 가격 인상은 올해 3월 이후 6개월 만이다.

가격이 인상되는 품목은 라면 브랜드 26개, 스낵 브랜드 23개다.

주요 제품의 가격 인상 폭은 출가가격 기준으로 신라면 10.9%, 너구리 9.9%, 새우깡 6.7%, 꿀꽂배기 5.9%다.

이에 따라 신라면 가격은 대형마트 기준으로 봉지당 평균 736원에서 820원으로, 새우깡은 1100원에서 1180원으로 인상될 것으로 보인다. 각 제품의 판매가격은 유통점별로 상이하다.

농심은 올해 4월 이후 국제 분쟁과 인플레이션

으로 인해 원재료 가격이 급등하고 환율이 상승하면서 원가부담이 심화돼 이번엔 가격 조정을 결정했다고 설명했다.

농심 관계자는 "지금까지 라면과 스낵 가격이 소비자 물가에 미치는 영향을 고려해 내부적으로 원가절감과 경영효율화를 추진하는 등 원가 인상 압박을 감내해왔지만, 2분기 국내에서 적자를 기록할 만큼 가격조정이 절실한 상황이었다"고 말했다.

/연합뉴스

한 눈에 보는 경제지표	
↑ 코스피	2447.45(+12.11)
↑ 코스닥	793.14(+9.72)
↑ 금리(국고채 3년)	3.311(+0.030)
↓ 환율(USD)	1342.10(-3.40)